

3D 다큐멘터리 '플라이 몬스터 3D', 영국 아카데미 BAFTA 최우수 논픽션 프로그램 수상

2011. 6. 20

Overview

영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사 애틀랜틱 프로덕션(Atlantic Productions)이 영국 위성 방송사업자 BSkyB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플라이 몬스터 3D(Flying Monsters 3D)'가 영국 아카데미(BAFTA) 시상식에서 최우수 논픽션 프로그램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Briefing

'플라이 몬스터 3D', 3D TV 프로그램 최초로 BAFTA상 수상

- o 애틀랜틱 프로덕션의 다큐멘터리 '플라이 몬스터 3D'가 3D 입체영상 프로그램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BAFTA, British Academy of Film and TV) 시상식에서 최우수 논픽션 프로그램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됨
 - '플라이 몬스터 3D'는 날개 길이 1.2m의 멸종된 비행 파충류 익룡(pterosaurs)을 소재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로,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자연 다큐멘터리의 거장 데이비드 아텐보로 경(Sir. David Attenborough)에 의해 기획됨
 - 다큐멘터리 제작사 애틀랜틱 프로덕션은 그간 최첨단 그래픽 기술을 도입한 다큐를 제작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으며, BBC, BSkyB 등의 영국 방송사뿐만 아니라 디스커버리(Discovery),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PBS 등 미국 방송사에도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음
 - BBC의 프로듀서 출신으로 애틀랜틱 프로덕션의 설립자이자 현 CEO인 안소니 게펜(Anthony Geffen)은 "데이비드 아텐보로 경¹⁾을 포함한 일부 제작진들이 다큐멘터리로 명성이 높은 BBC가 아닌 BSkyB의 투자를 받아 제작하는 것을 우려했으나,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BBC와 달리 BSkyB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큐 제작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음
 - 실제로 BSkyB는 '플라이 몬스터 3D' 제작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억 6,000만 달러 초과된 9억 8,3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짐

1) 데이비드 아텐보로 경은 BBC Natural History를 대표하는 인물로 1952년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BBC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이후 BBC 2 채널의 관리를 맡아 야생생물 시리즈 'World About Us'를 제작, 이 프로는 이후 BBC의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

Figure 1

'플라이 몬스터 3D' 극장용 포스터(좌) 및 스틸샷(우)



자료: www.flyingmonsters3dmovie.com

- 한편, '플라이 몬스터 3D'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엔터테인먼트(National Geographic Entertainment)의 배급으로 유럽 전역의 아이맥스 극장에서 개봉되었으며, 올해 안에 미국 개봉도 예정되어 있음
 - 안소니 게펜 CEO는 '플라이 몬스터 3D'가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최대 5,0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BskyB의 존 게이(John Gassy) 3D 담당 디렉터는 '플라이 몬스터 3D'의 BAFTA상 수상을 계기로 콘텐츠 제작업체, 방송사, HDTV 제조사들이 3D 디스플레이 기술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또한 애틀랜틱 프로덕션은 아텐보로 경이 펭귄의 생활을 소재로 극본과 내레이션을 담당한 또 한편의 3D 다큐멘터리를 현재 제작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작품은 BskyB의 3D 채널을 통해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방영될 예정임

Analysis

최근 들어 3D 다큐멘터리가 3D 콘텐츠 시장에서 매력도 높은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3D TV 도입에 따른 고화질 영상 제작이 가능해지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보편성 추구가 갖는 '낮은 문화적 할인'이라는 장르의 특징 덕분이다. 특히 올해 2월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디스커버리(Discovery)와 소니(Sony), 아이맥스(IMAX)가 합작한 미국 최초의 3D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 '3net'이 개국하는 등, 세계적으로 3D 다큐멘터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EBS가 2009년 방송된 '한반도의 공룡'을 3D 입체영상으로 변환, 올해 8월 극장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아마존의 눈물', '최후의 툰드라' 등 평균 제작비 10억 원에 이르는 3D 다큐들이

잇따라 제작되고 이 같은 열풍이 극장 상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핵심 3D 콘텐츠로 자리 잡은 다큐멘터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Source

1. HDTV test, 'Sky's Flying Monsters Becomes First 3D TV Programme To Win BAFTA Award', 2011. 5. 25
<http://www.hdtvtest.co.uk/news/flying-monsters-3d-bafta-201105251163.htm>
2. Variety, 'Atlantic flying high with monster project', 2011. 6. 11
<http://www.variety.com/article/VR1118038360?refcatid=14&printerfriendly=true>